

국내외 실적시즌 기대감 ‘쑥’... 美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

코스피, 실적 불확실성 선반영 중
이달 말 불안심리 완화 시작 전망
금리상승·美-中 분쟁 우려 변수
美 핵심경제지표 양호 전망 ‘긍정적’

미국빅테크그룹 ‘매그니피센트7’ (M7)의 실적 발표와 미국 핵심 경제지표들의 양호한 수치가 기대되면서 국내 증시의 반등 기회가 엿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외국인 수급 불안 등이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21~25일) 코스피는 0.41% 하락한 2583.27에 거래가 종료됐다. 해당 기간 코스피에서 기관과 개인은 각 3754억원, 5955억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1조1618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28거래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순매도 중인 상태로, 역대 최장 기간을 경신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월 코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 이미지.

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글로벌 증시 대비 유독 약한 것은 실적시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10월 말 3분기 실적 시즌 정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적 결과에 따른 등락을 감안하더라도 불안 심리 완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의 다수 업종들이 실적 불

확실성을 상당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 국내 대표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감이 증시 반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9일(현지시간) 알파벳

과 AMD, 30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내달 14일에 예정돼 있다. 미국 증시 내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것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3일 장 마감 이후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직후였던 24일 전 거래일보다 21.92% 급등했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 24일 SK하이닉스가 시장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20만닉스’로 복귀했다. 오는 31일에는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빅테크 실적 발표가 집중될 예정”이라며 “관련 기업들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와 자본지출 계획 변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 반도체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 상승과 미-중 분쟁 우려가 변수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세금 인하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해 국제 금리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며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분쟁 격화 위험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핵심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주는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10월 고용 등 핵심 경제지표들이 발표돼 미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전망이 이어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3분기 ‘깜짝실적’ 발표... 모건스탠리 “우리가 틀렸다”

metro 관심종목

SK하이닉스

매출 17.5조, 영업이익 7조 기록
분기 최고실적... 매출 전년비 94% ↑
모건스탠리 반성문·목표주가 상향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던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주가를 줄임향하고 있다. 주가도 실적 기대감 지속과 함께 20만원대로 복귀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21~25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7.31% 오르면서 ‘20만닉스’를 되찾았다.

올해 3분기 높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 24일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 18조370억원, 영업이익 6조7628억원 수준이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중 최고 실적이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94% 급증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지

난달 15일 보고서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looms)’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을 전망했던 모건스탠리도 일종의 반성문과 함께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 킴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 “우리의 단기 전망이 틀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는 기존 10만5000원에서 7만6000원(-28%)으로, SK하이닉스는 26만원에서 12만원(-54%)으로 목표주가를 크게 내렸다.

다만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존 12만원에 13만원으로 소폭 상향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며 투자

의견 ‘비중 축소(Underweight)’를 유지했다. 마지막 거래일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0만1000원이다.

반면, 여타 증권사에서는 최대 33만원의 목표가가 제시됐다. 외국계인 씨티은행은 목표가를 기존 31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IBK투자증권 30만원 ▲유진투자증권 28만원 ▲미래에셋증권 27만원 ▲NH투자증권 26만원 ▲흥국증권 26만원 ▲유안타증권 26만원 ▲BNK투자증권 25만원 ▲하나증권 24만원 ▲신영증권 24만원 등이 제시됐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비트그로스(Bit Growth), 평균판매단가(ASP)에 있어서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돼 있고,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오는 4분기 디램(DRAM) 매출액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그래픽 비중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에 있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린 증권사도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였던 지난 25일 기준 28만원이었던 목표주가를 26만원으로 하향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황 둔화 구간에서 동사가 보유한 HBM 시장 주도권은 오히려 지속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내년 업계 수요 성장은 전통 수요처의 부진으로 기존 예상 대비 둔화 되는 반면, 공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코스콤,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으로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

여의도 한강공원 ‘도시정원 조성’ 행사
신입사원 연수과정 사회공헌활동 포함

코스콤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취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목표다.

코스콤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도시정원 조성’ 행사에 참여해 코스콤의 후원으로 조성된 정원의 식재 활동 및 제작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 주최로 열렸으며 코스콤 임직원을 포함한 시민 1000여명이 동참해 한강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 앞서 이달 17일에도 코스콤 부산센터 직원들이 부산시 동구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동구 내 위치한 친수



코스콤이 신입직원들과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공원 및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코스콤은 임직원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별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IT인프라본부가 안양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책걸상·책장 등 가구를 직접 제작해 전달

했으며,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코스콤 경영전략본부 직원들이 현충원에서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신입사원 연수과정에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코스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소속감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시키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신입사원들은 독서 소의 아동을 위한 동화책 오디오북 녹음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앞서 2월에 입사한 20여명의 신입사원들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책 제작 활동을 하고, 제작된 책과 교구를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코스콤은 임직원들의 취미와 봉사를 결합한 동호회 봉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환경의 달을 맞이해 코스콤 내 곳곳에 동호회인 ‘꽃담’과 연계해 나눔을 실천했다. 당시 동호회원들이 직접 식재한 300여 개의 공기정화 식물 화분을 영등포구 내 사회복지 시설 및 복지 대상 가정으로 지원했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코스콤은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참여형 사회공헌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업비트 주문취소 접수 기능 추가

업비트는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실험실’에 주문취소 접수 기능 2종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전문기업 두나무는 업비트에 실험실 기능을 탑재, 정식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들을 시범적으로 공개해 이용자들이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 실험실은 업비트 ‘더보기’ 탭을 통해 접근 가능하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활성화할 수 있다.

실험실에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간편 주문취소’와 ‘바로 주문취소’로 이용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접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주문취소·접수 기능은 업비트 모바일 앱 최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